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 김상배 지음 |

*International Relations of Arachne:
Challenge of the 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



한울
아카데미

982

한글 아카데미

이 저서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042)

프롤로그	1. 신화 속 아라크네의 도전	12
아라크네의 도전	2. 17세기 아라크네의 도전	14
	3. 21세기 아라크네(들)의 도전	19
서론	1.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현실	27
국제정치이론을 넘어서	2.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한계	30
	3. 탈국제정치이론의 시도들	34
	4.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실마리들	40
	5.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	43
	6. 이 책의 구성	49

제1부 네트워크의 국제정치학적 원용

제1장	1. 네트워크 개념의 다양성	59
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2.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원용	62
	3.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70
	4.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89
	5. 행위자-구조-과정으로서 네트워크	105
제2장	1. 복합으로 보는 네트워크	109
네트워크의 국제정치학적 이해	2.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서 네트워크	113
	3. 새로운 구성 원리로서 네트워크	123
	4. 새로운 세계질서로서 네트워크	131
	5.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정치	142
제3장	1. 은유로 보는 네트워크 세계정치	147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분석틀	2. 행위자-구조-과정의 복합 프레임	154
	3. 복합 프레임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161
	4.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	167
	5.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실천론과 인식론	170

제2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제4장	1. 네트워크로 보는 정보세계정치	181
정보혁명과 세계정치 변환론	2. 정보혁명의 개념적 이해	185
	3.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시각	194
	4. 구성적 변환론으로 보는 정보혁명	203
	5.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	217
제5장	1. 네트워크로 보는 권력 변환	225
권력 변환과 네트워크 권력론	2. 권력 변환에 대한 기존의 논의	227
	3. 소프트·스마트 파워의 비판적 검토	241
	4. 네트워크 권력의 세 얼굴	252
	5.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277
제6장	1. 네트워크로 보는 국가 변환	281
국가 변환과 네트워크 국가론	2. 국가의 성격변환과 지식국가	285
	3. 국가의 형태 변환과 네트워크 국가	294
	4.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권력론	304
	5. 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정치	313
제7장	1. 네트워크로 보는 질서 변환	319
질서 변환과 네트워크 질서론	2. 국가 주권의 변환과 네트워크 주권	324
	3. 무정부 질서의 변환과 네트워크 질서	333
	4.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질서론	344
	5. 네트워크 질서의 세계정치	357
제8장	1.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전략	361
중견국의 네트워크 전략론	2. 프레임 짜기의 네트워크 전략	370
	3. 맺고 끊기의 네트워크 전략	377
	4. 내 편 모으기의 네트워크 전략	386
	5. 표준 세우기의 네트워크 전략	394
	6.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 전략	400

제3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적용

제9장	1. 표준 경쟁으로 보는 글로벌 패권 경쟁	405
글로벌 패권 경쟁과 표준 경쟁	2. 표준으로 보는 미국의 네트워크 권력	410
	3. 미국과 일본의 컴퓨터 산업 표준 경쟁	419
	4.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표준 경쟁	426
	5. 3차원 표준 경쟁의 세계정치	434

제10장			
외교 변환과 디지털 공공 외교	1. 정보혁명과 외교 변환	437	
	2. 외교 변환의 사례로서 공공 외교	445	
	3. 디지털 공공 외교와 외교 변환의 한계	454	
	4.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의 공공 외교	466	
	5. 한국의 공공 외교 전략	474	
제11장			
사이버 안보의 비대칭 망제정치	1. 네트워크로 보는 사이버 안보	479	
	2. 네트워크로 보는 사이버 안보의 위협	485	
	3. 사이버 공격과 국가 행위자의 역할	493	
	4. 사이버 안보와 네트워크 국가의 대응	504	
	5. 사이버 안보의 비대칭 망제정치	518	
제12장			
글로벌 문화 산업과 디지털 한류	1. 네트워크로 보는 글로벌 문화 산업	523	
	2. 매력과 네트워크로 보는 한류	531	
	3. 디지털 한류와 사이버공간의 네트워크	543	
	4. 문화 분야의 네트워크 지식국가?	551	
	5. 문화 산업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558	
제13장			
사이버공간의 글로벌 지식질서	1. 네트워크로 보는 사이버공간	563	
	2. 글로벌 지식질서의 분석틀	567	
	3. 사이버공간의 글로벌 지식질서	572	
	4. 네트워크로 보는 글로벌 지식질서	582	
	5. 사이버공간의 망제정치	590	
결론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찾아서	595		
참고문헌	613		
찾아보기	655		

표와 그림 차례

- <그림 가> 루벤스 그림 속의 그리스 신화 13
- <그림 나> 벨라스케스, <실 갖는 여인들> 또는 <아라크네의 설화> 15
- <그림 다> 전쟁의 여신 아테나와 거미 여인 아라크네 20
- <표 1>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구도 31
- <그림 1-1> 위계 조직에서 네트워크로 65
- <그림 1-2> 국제체제의 무기 이전 네트워크 (2000년) 75
- <그림 1-3> 네트워크 지형도 76
- <그림 1-4> 통합 네트워크와 분절 네트워크 79
- <표 1-1> 강한 고리와 약한 고리 81
- <그림 1-5> 의무 통과점 98
- <그림 1-6> 관심 끌기의 삼각형 99
- <그림 1-7> 네트워크 전략의 네 단계 102
- <그림 2-1> 집합으로서 복합 114
- <그림 2-2> 1-형식 네트워크와 2-형식 네트워크 116
- <표 2-1> 복합 네트워크의 발상 120
- <그림 2-3> 혼종으로서 복합 124
- <그림 2-4> 공존·공진으로서 복합 132
- <표 2-2> 복합 네트워크의 유형 구분 135
- <그림 2-5> 복합성의 개념적 구성 144
- <그림 3-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149

<그림 3-2>	행위자-구조-과정의 복합 프레임: 연극의 비유	156
<그림 3-3>	복합 프레임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162
<그림 3-4>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	168
<그림 4-1>	정보혁명의 이해: 빙산의 비유	186
<표 5-1>	권력 자원과 리더십 스타일	237
<표 5-2>	중개자의 유형	266
<표 6-1>	21세기 국가 변환의 두 가지 경로	286
<그림 7-1>	네트워크 질서의 개념적 위상	337
<표 7-1>	망제체제의 개념적 위상	338
<그림 7-2>	네트워크의 세 가지 유형	341
<그림 7-3>	메타 질서로서 네트워크 질서	344
<그림 8-1>	아시아의 무기 이전 네트워크	367
<그림 8-2>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	372
<그림 8-3>	21세기 연(聯)-결(結)-친(親)-맹(盟)의 전략?	383
<그림 9-1>	지구 인터넷 트래픽 흐름도(2007)와 지도(2011)	412
<표 11-1>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주요 사이버 공격, 2007~2013년	500
<표 12-1>	한류 기획사들의 네트워크 전략	541
<그림 12-1>	네트워크로 보는 한류 기획사들의 전략	541
<표 13-1>	네트워크로 보는 지식질서의 아키텍처	587

프롤로그

아라크네의 도전

이 책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탐구한 작업이다. 사실 국제정치학계에서 세계정치의 변환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70~1980년대 이래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빌려서 이론적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 책에서 벌인 시도도 이러한 국제정치학적 고민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시도는 네트워크를 화두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새롭다. 네트워크는 오늘날 세계정치의 변환을 잡아내는 핵심어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이기까지 하다. 태생적으로 학술 개념이기보다는 일상용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념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 책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펼치기에 앞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바를 은유적으로나마 잠시 돌아보고자 한다.

1. 신화 속 아라크네의 도전

이 책에서 주목하는 네트워크의 은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라크네라는 ‘거미 여인’의 이야기에서 착안했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 Ovidius의 『변신 이야기 Metamorphoses』에 나오는 아라크네는 직물 짜기로 유명한 리디아의 젊은 여인이다(오비디우스, 2005). 그 솜씨가 너무도 뛰어나서 직물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테나(로마 신화의 미네르바)에게서 직접 배웠느냐는 찬사를 들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이러한 말에 화내며 자신의 솜씨는 스스로 터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테나보다도 뛰어나다고 뽐냈다. 아라크네의 호언장담을 전해 들은 아테나는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와서 신을 모독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아테나에게 대결을 청했다. 이에 본색을 드러낸 아테나와 아라크네는 직물 짜기의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아테나는 도시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놓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쟁투를 벌이던 장면을 자신이 짠 직물 위에 수놓았다. 삼지창을 땅에 꽂아 바다물을 샘솟게 한 포세이돈에 대해 자신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를 선사함으로써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얻은 이야기를 담았다. 직물의 가장자리에는 신들에 대한 불경과 교만으로 벌을 받는 인간들을 수놓았다. 이에 비해 아라크네는 자신의 직물에 최고신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신들의 불륜 행적을 수놓아 신들을 조롱했다. 주로 신들이 동물로 둔갑해 인간의 아내와 딸들을 취하거나 희롱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젊은 여인인 에우로페를 등에 업고 바다를 건너 납치하는 장면을 담아 제우스의 딸인 아테나를 자극했다(〈그림 가〉의 왼쪽 그림 참조).

아라크네가 직물을 짠 솜씨만은 나무랄 데가 없이 훌륭해 경합을 벌였던 아테나조차도 탄복했다. 그러나 신을 모독하는 내용을 수놓은 아라크네의 오만은 아테나의 노여움을 샀다. 아테나는 아라크네가 짠 직물을 찢고 베를

〈그림 가〉 루벤스 그림 속의 그리스 신화



루벤스, 〈에우로페의 납치〉



루벤스, 〈아테나와 아라크네〉

부수었으며, 아라크네의 이마를 북으로 내리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죄책감을 품게 했다(〈그림 가〉의 오른쪽 그림 참조). 치욕을 못 이긴 아라크네는 스스로 목을 매었다. 이러한 아라크네를 불쌍히 여긴 아테나는 약초 즙을 뿌려서 아라크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아라크네는 거미가 되어 평생 실을 짜며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되었다.

아라크네의 이야기에는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무모함과 어리석은 자만심을 꾸짖는 교훈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들이 주로 미모를 뽐내거나 잘못된 품행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것과는 달리, 아라크네는 자신의 솜씨를 뽐내서 신의 노여움을 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단순한 외모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용기로 신에게 도전한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는 지혜와 기능의 여신이다. 이러한 아테나에게 아라크네는 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신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터득한 기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기성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경합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그것은 승패가 중요한 경합이 아니었다. 아테나가 아라크네를 벌한 이유는 아라크네가 경합에 패배해서가 아니라 신에게 불경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었다. 만

약에 솜씨가 뛰어난 아라크네가 겸손하기까지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신화 속 이야기들이 모두 그렇듯이 아라크네의 이야기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물론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도 음미해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캐스린 크로거(Kathryn S. Kroger)는 아테나와 아라크네가 경합을 벌인 이야기가 당시 지중해 지역의 직물 산업을 둘러싼 도시국가 간의 무역 경쟁을 반영한다고 해석한다(Kroger, 2002: 72). 아라크네가 기술적 측면에서 앞선 도시국가를 상징한다면, 아테나는 물리적 힘과 권위에서 우위를 점하던 도시국가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로버트 그레이브스(Robert Graves)도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경쟁의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Graves, 1955). 그레이브스에 의하면, 이 신화는 당시 지중해의 패권국이던 아테네와 크레타에 기원을 두는 리디아-카리아(트로이 남쪽의 나라)의 라이벌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크레타 섬의 밀레투스가 한때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고 염색된 옷감의 수출항이었는데, 이렇게 성장하던 세력이 아테네에 도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크레타 지역의 사람들이 거미를 자신들의 문양으로 사용했다는 설은 이러한 해석에 신빙성을 더한다.

2. 17세기 아라크네의 도전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경합 이야기는 서양의 여러 작품에 재현되어 등장했는데, 근대 초기 서양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그림 가〉의 오른쪽에 있는, 네덜란드의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가 그린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그림도 그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라크네를 소재로 한 그림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스페인의 화가인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ázquez, 1599~1660)가 그린 〈실 짓는 여인들(The Spinners)〉, 일명 〈아라크네의 설화(The Fable of Arachne)〉이다(〈그림 나〉 참조).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

〈그림 나〉 벨라스케스, 〈실 잣는 여인들〉 또는 〈아라크네의 설화〉



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은 원래 1657년경에 164cm × 250cm의 캔버스(〈그림 나〉의 흰색 실선 안쪽)에 그린 유화였는데, 1700년대 중후반에 확장되어 222cm × 289cm의 크기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약 20cm 가량씩 확장된 좌단과 우단에 비해서 상단이 60cm 가량이나 확장되었다.

이 그림을 누가 언제 왜 확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대중적으로는 1734년 스페인 왕궁의 화재로 훼손된 후 수정되는 과정에서 확장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 그림이 1734년 화재 당시 왕궁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80년에 시작되어 1986년에 끝난 로시오 다비아(Rocio Davila)의 복원 작업 과정에서 이 그림에는 화재로 말미암아 훼손당한 흔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다만 방사선 촬영 기법을 통해서 원래 그림은 1600년대 후반에 완성되었지만, 그 후 1700년대 중후반에 좌우단과 상

단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그림은 화가 벨라스케스 자신이 직접 그린 부분(그림 나)의 흰색 점선 안쪽, 벨라스케스가 1660년에 사망한 이후 제3자가 추가로 그려 넣은 부분(확장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확실해졌다(Gabriela, 1985).

페르난도 마리아스 Fernando Marias 에 의하면, 이렇게 확장된 부분은 제3자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릴 당시 또는 그 후에 벨라스케스 자신이 품었던 구상이 후대의 확장 작업에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Mariás, 2003). 이에 비해 프라도 미술관의 주장은 1700년대 중후반에 이 그림이 화재 이후 새로 지어진 스페인 왕궁에 전시되는 과정에서 단지 전시 벽면의 크기에 맞추고자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확장 작업은 당시 유사한 작업을 많이 담당했던 화가인 가르시아 드 미란다 Garcia de Miranda가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무렵 벨라스케스의 다른 그림들도 비슷한 이유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프라도 미술관에는 확장된 부분을 뒤로 가리고 원래 크기인 164cm × 250cm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¹

이렇게 확장 작업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데도 이 그림은 확장되면서 전경과 후경을 대비하는 그림의 중층 구도가 선명해졌다. 누가 그려 넣었건 간에 그림이 담은 메시지를 해석할 여지가 더욱 풍부해진 것이다. 특히 확장 작업을 통해 화면 후경에 천장이 그려지면서 이 그림 속 이야기의 핵심인, 전경과 후경을 대비하는 해석의 여지를 크게 늘려놓았다. 새로 확장된 그림에서는 마치 후경에 따로 작은 방이 있어서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는 듯하다. 이 그림 속에는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와 아라크네 이야기에 17세기 중반의 현실이 대비되면서 절묘하게 복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화와 현실 사이에는 경계가 없으며, 다만 두 세계가 원근법 구도 안에 처리되어 중첩된다. 벨라스케스의 그림들은 이러한 종류의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해석을 낳는 것으로 유명

1 프라도 미술관의 스페인 바로크 회화 담당 큐레이터와의 이메일 통역 인터뷰.

하다.²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화면 후경의 벽과 방에서 전경의 실 잣는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면이 겹쳐져서 중층적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다.

먼저 원근법으로 처리된 화면의 후경부터 살펴보자. 그림의 후경은 그리스 신화 속 아테나가 아라크네를 벌하는 장면이 소재이다. 뒷벽에는 신화 속 아라크네가 직물에 수놓았던,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납치하는 광경의 태피스트리Tapestry가 걸려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당대 귀족 부인의 행색을 한 여인 세 명이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경합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전경에는 물레를 돌리며 실을 잣는 두 여인이 있고, 이들을 돕는 세 여인이 양털을 더 가져오거나 찌꺼기를 골라내고 있다. 원래 이 그림은 산타 이사벨 왕립 태피스트리 공장의 일상을 그린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언뜻 보면 신화 이야기가 그려진 태피스트리가 걸린 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그린 풍속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에서 신화 속 이야기와 현실의 이야기를 복합해 무언가 전달하고자 했다. 전경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후경을 참조해야 하고, 후경의 내용을 알려면 전경을 보아야 한다(볼프, 2007: 67~68; 정은경, 2012: 178~181).

후경의 방은 전경의 작업장보다 두 계단 높게 설정되어 구별되는데, 전경의 작업장에 딸린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밝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모습도 전경의 여인들과는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후경의 벽에는 태피스트리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베첼리오 티치아노Vecellio Tiziano, 1488?-1576가 그린 〈에우로페의 납치The Abduction of Europe〉를 루벤스가 모사해서 그린 그림이 ‘그림 속의 그림’으로 담겨 있다(〈그림 가〉의 왼쪽 그림 참조).³

2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지닌 벨라스케스의 그림 중에서도 복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작은 1656년에 완성한 〈시녀들(The Maids of Honour)〉이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나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등과 같은 화가가 모사해 다시 그림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정은경, 2012).

3 흥미롭게도 벨라스케스가 그린 〈아라크네의 설화〉와 이 ‘그림 속의 그림’인 루벤스의

그 바로 앞에는 아테나가 아라크네를 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이 서 있는 공간은 나머지 화려한 복장을 한 여인 세 명이 있는 공간보다 약간 아래로 꺼져 있다. 마치 아테나와 아라크네는 신화의 한 장면을 공연하는 배우 같고 세 여인은 이 장면을 구경하는 관객처럼 보인다. 여기서 벨라스케스는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이용해 다섯 여인의 존재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신화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었다.

후경에서 묘사된 신화의 세계는 전경의 현실로 투영된다. 전경의 왼쪽에 흰 수건을 머리와 목에 두른 늙은 여인은 변장한 아테나를 상징하는데, 걸어 올린 치마 사이로 드러난 매끈한 다리는 여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암시한다. 전경의 오른쪽에서 오른손으로 실 뭉치를 쥐고 왼손으로 실 한 오라기를 잡은 채 팔을 내뻗은 젊은 여인은 아라크네를 상징한다. 이들이 취한 자세는 직물 짜기 경합을 벌임을 보여준다. 아테나가 뻗은 다리만큼 아라크네는 왼쪽 다리를 접었으며, 아테나가 접은 팔 만큼 아라크네가 왼쪽 팔을 뻗었다.⁴ 과거의 경합에서는 후경에서처럼 아테나가 아라크네를 벌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경합을 벌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왼쪽의 늙은 여인(아테나)에 비해서 오른쪽의 젊은 여인(아라크네)이 훨씬 더 밝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 벨라스케스가 예견한 승부의 결과를 짐작케 한다.

이 그림에서 벨라스케스가 다른 두 세계를 중첩하고자 원용한 기본 소재는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경합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 그림의 복잡성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17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화려한 궁정과 고달픈 현실, 영웅적 삶과 평범한 일상, 창조적인 것과 모방적인 것, 이상적 예술과 대중적 예술

〈에우로페의 납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의 같은 전시실(15a)에 걸려 있다.

4 벨라스케스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가 그린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에 있는 남자 나체상의 구도를 참고해서 이렇게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의 양자 간에 균형을 이루는 자세를 그렸다고 한다(볼프, 2007: 68).

등을 대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로 벨라스케스가 이렇게 중층적인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 했느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서양 미술사 연구의 관심사였다. 개인사적으로 벨라스케스는 뛰어난 솜씨로 아테나 여신에게 도전했던 아라크네에 빗대어 티치아노의 그림을 모방한 당대의 대가 루벤스를 조롱하는 동시에 자신의 고귀한 예술적 창조성을 과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Georgievska-Shine, 2010). 루벤스의 그림이 아테나가 아라크네를 내려치는 장면을 소재로 해서 통상적인 해석을 따랐다면(〈그림 가〉의 오른쪽 그림 참조),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아라크네가 벌이는 새로운 창조의 도전으로 신화 속 이야기를 재해석한다(〈그림 나〉 참조).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보아도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에 담은 아라크네의 도전은 17세기 중반이라는 근대 초기 유럽의 상황에서 스페인이 벌이던 국가적 도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3. 21세기 아라크네(들)의 도전

이상에서 아테나에게 도전하는 아라크네의 이야기를 다소 길게 소개한 것은 아라크네의 도전이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탐구하는 이 책의 시도에 은유적으로 던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벨라스케스의 작업처럼 아라크네의 신화를 현실의 세계에 겹쳐놓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신화 속 이야기에 대비하려는 현실은 17세기 중반의 어느 태피스트리 공장이 아니라 21세기 초엽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세계정치 공간이다. 다시 말해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아라크네의 도전에 빗대어 근대 세상의 현실을 담아내고자 했다면, 이 책에서 그리려는 또 하나의 그림은 아라크네의 새로운 도전으로 비유되는 탈근대 세상의 단면이다.

여러모로 아테나의 이미지는 기존의 근대 국제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는 지혜와 기능의 여신인 동시에 전쟁의 여신이다. 언제

〈그림 다〉 전쟁의 여신 아테나와 거미 여인 아라크네



나 투구와 갑옷을 입고,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든 무장한 여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그림 다〉 참조). 공격적 전쟁을 관장하는 신인 아레스와 달리 방어적 전쟁을 관장하는 아테나는 총명하고 순결하며 인간 세계의 영웅들을 수호하는 이성적 여신이다. 아테나는 누구와도 결혼하

지 않은 처녀였는데,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아테나에게 각별한 연정을 품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헤파이스토스는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날 때 양날 도끼로 그 머리를 갈라서 도왔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아테나는 전쟁과 지혜, 무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이 책에서 아테나의 이미지에 군사력을 기반으로 작동한 근대 국제정치를 비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에 비해 아라크네는 근대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비유를 시도하는 연상의 계기는 네트워크이다. 신화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라크네는 신들과 족보가 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문가의 딸도 아니었다. 아라크네가 믿었던 것은 오직 거미처럼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직물을 짜는 솜씨였다. 뛰어난 기능을 기반으로 삼아 직물을 짜던 아라크네였기에 아테나가 벌을 주면서도 다른 미물이 아닌, 쫄무니에서 실을 뽑아 네트워크를 치는 거미로 만들었다(〈그림 다〉 참조). 이 책에서 거미 여인 아라크네를 통해 21세기 세계정치의 이야기에 원용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 치기’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아라크네의 이미지가 국민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권위에 대한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도전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아라크네의 비유를 통해서 담고자 하는 메

시지는 근대 국제정치의 발상을 넘어서려는 탈근대 세계정치의 문제 제기로 통한다.

21세기 아라크네가 도전장을 내민 영역은 ‘아테나의 국제정치학’이 풀지 못하는 세계정치 현실의 변환 그 자체이다. 최근 우리 주위에서는 기존 국제정치의 발상으로는 시원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근대국민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부국강병의 게임에 주목하는 아테나의 국제정치학만으로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도전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국가 단위의 군사 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에만 시각을 고정해서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복합적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지구화와 정보화의 환경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나 지구 시민 단체 등과 같이 태생적으로 초국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행위자들의 부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더구나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경합하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권력정치의 메커니즘도 읽어내기 쉽지 않다. 21세기 권력정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놓고 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아테나의 관심사를 넘어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국가 행위자가 세계정치의 장에서 무력하게 물러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새로운 행위자들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사실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새로운 도전에도 근대 국제정치는 여전히 그 위력을 잃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21세기 아테나도 새로운 네트워크의 게임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생각을 돌이켜보면, 신화의 이야기에서도 아테나는 직물 짜기(네트워크 치기)를 관장하는 여신이었다. 오늘날 국가 행위자들은 부국강병 일변도의 단순 전략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복합 전략을 추구한다. 국가 행위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제기구나 다양한 형태의 정부 간 네트워크 현상도 더욱 두드러진다. 게다가 국제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국가 자체가 그 경계의 안과 밖에서 점점 더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를 겪고 있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가능성이 타진되는 지역 통합의 움직임은 이러한 국가의 네트워크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듯 전통 영역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존의 근대 국제정치적 발상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명심해야 할 것은 21세기 네트워크 치기를 시도하는 아라크네의 도전은 신화 속 이야기처럼 혼자서 외롭게 벌이는 게임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신화 속에서 아라크네가 단기필마(單騎匹馬)로 아테나 여신의 힘에 대항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아테나의 국제정치에 도전장을 던지는 아라크네의 세계정치는 여럿이 힘을 합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 홀로 거미줄을 치는 거미의 이야기에다 여럿이 힘을 합쳐 집을 짓는 꿀벌들의 이야기를 덧붙여 소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여러 아라크네가 끼리끼리 모여서 힘을 합치는 현상의 이면에는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확산된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을 빼놓을 수 없다. 예전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미미하게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었을 소수자였지만, 이제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에 기대어 기성의 권위에 도전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상황에서 아테나와 아라크네(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치기의 경합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까? 그리스 신화 속처럼 아테나가 권위를 내세워 상대를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던 아라크네들이 힘을 합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것인가?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책이 그리고자 하는 21세기의 경합에서는 아직 그 승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비유컨대 새롭게 짜이는 직물에는 아테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라크네(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다. 아테나도 그 권위를 좀 더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고, 아라크네(들)도 좀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 책의 제목을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아라크네’라는 말에다가 네트워크와 친화적인 세계정치학이라는 말 대신 아테나를 연상케 하는 ‘국제정치학’이라는 말을 일부러 조합해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이라

고 붙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⁵

이 대목에서 이 책의 제목에 담긴 고민을 좀 더 털어놓아야 할 것 같다. 사실 이 책의 제목으로 가장 크게 끌린 것은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였다.⁶ 국민국가라는 노드(node) 행위자 간의 정치, 즉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화하는 행위자들, 즉 ‘네트워크 간의 정치’라는 의미로서 망제정치가 부상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에서 담고자 한 21세기의 모습은 근대 국제정치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탈근대 세계정치가 완전히 득세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서 서로 변환을 겪으면서 구성되는 복합적 망제정치의 모습이다. 그러나 망제정치라는 말이 대중에게뿐만 아니라 국내 학계에서도 여전히 생경하게 들릴 것을 우려해 끝내는 제목에 담지 않았다.

그 대신 국제정치와 세계정치라는 근대와 탈근대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병치하는 방법으로 이 책의 주제를 전달하고자 했다. 국제정치가 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부국강병의 정치를 의미한다면, 세계정치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도 참여해서 벌이는 복합적 권력정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정치와 세계정치라는 말은 우리가 19세기에 겪었던 근대와 21세기에 당면하는 탈근대를 극명하게 대변하는 용어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정치와 세계정치 사이에 발생하는 망제정치의 숨은 이야기

5 ‘국제(國際)’라는 표현은 영국의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1789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international’이라는 용어를 19세기 후반에 번역한 것이다. 국제는 국민국가 간의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국제정치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불교의 시간 개념인 ‘세’와 공간 개념인 ‘계’를 합성한 ‘세계(世界)’로 번역되는 ‘world’라는 말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사용되기 시작해서 특히 근대 국제정치의 자기모순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정치를 표현하고자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하영선, 2012: 24).

6 ‘망제정치’라는 용어는 2005년의 어느 봄날에 하영선 선생님과 대화하던 도중에 처음으로 힌트를 얻었는데, 글로는 김상배(2005)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다.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붙여졌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필자가 발표한 글을 다듬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 써서 보완한 결과물이다. 작은 단위의 연구로 평가하는 현재 국내 학계의 현실로 말미암아 개별적 작업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이 책의 구성과 같은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깔고 블록을 하나하나 놓는 방식으로 쌓아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사실 이 책은 2010년 9월에 출판한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한울)의 후속작이다. 원래는 하나의 작업으로 구상해 추진했으나, 정보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보는 21세기 권력론 일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출판하고, 그 후 국제정치학의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전시켜서 따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의 핵심 주제인 네트워크 권력, 네트워크 국가, 네트워크 질서 등이 국제정치학의 시각에 맞게 더욱 다듬어졌다.

이 책의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0-12년도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 SSK)'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와 한국의 시각에서 한동안 진행했던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재구성하고 재집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합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진행한 작업들의 과정과 결과는 세 곳의 웹사이트,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networkpolitics.ne.kr>), '국제정치포털: 변환의 세계정치'(<http://www.worldpolitics.ne.kr>), '(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http://www.sangkim.net>)에 담았다.

이 책을 집필할 가장 큰 목적은 향후 세계정치의 변환과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와 토론의 전개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여 년 동안 네트워크를 화두로 한 권력

정치와 세계정치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관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도대체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세계정치의 연구 분야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구성적 열개와 경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 책에서 던지는 화두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시각에서 탐구하려는 향후의 시도에 밑돌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얻었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정보세계정치연구회의 월례 세미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토론은 이 책의 작업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만청^{晩靑} 하영선 선생님께서는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사고의 기본 구조를 세우고 그 내용을 채우는 데 큰 가르침을 주셨다. 임혁백, 조현석, 류석진 세 분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이 없이는 이 책의 작업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인생과 학문의 선배이거나 동료로서 많은 격려를 주신 손열, 전재성, 이승주 세 분 교수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SSK 프로젝트의 조교를 맡아 번거로운 이 책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맡아준 송태은, 최인호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표지에 실은 벨라스케스의 그림과 관련된 자료 조사와 이메일 인터뷰는 최화니가 성심껏 도와주었다. 2013년 1학기 대학원 세미나에 참가해 이 책의 초고를 같이 읽고 유익한 토론을 해준 곽민정, 김병구, 양경진, 유성, 윤정현, 최은실, 황예은, 그리고 이 책의 출판 작업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한울의 관계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족들의 성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의 작업을 끝맺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2013년 1월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할 당시 길벗이 되어준 아내가 고맙다.

2014년 1월 25일

김상배